

5년연속 수능 전국 1위·4년제대 진학을 1위 등 “실력 광주 이끈 비결 배웠다”

광주 은 안병만 교과부장관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극찬’



“다시 한번 ‘실력 광주’를 이끈 안 교육감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안병만(사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공식행사에서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의 교육행정에 대해 극찬을 해 화제다.

3일 광주에서 열린 국립광주과학관 기공식에 참석한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축사 도중 “광주 교육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다”며 입을 열었다.

안 장관은 “광주는 여러 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도시지만, 교육만큼은 전국 최고의 도시”라면서 “도대체 매년 수능 1등을 한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해 어제(2일) 저녁 광주에서 안 교육감을 만나 광주의 교육 비법을 물어보고, 또 많이 배웠다”면서 “교육감 한 사람이 한 도시의 교육을 변화시킨 비결이 놀라웠으며, 그의 교육 철학과 교육에 대한 열정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광주의 교육정책을 타 시·도 교육청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부도 배우도록 하겠다”며

후 광주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급상승한 데 대한 격려와 감사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안 교육감 부임 기간동안 광주는 수능 성적 전국 1위를 5년 연속 이어갔고, 4년제 대학 진학률도 매년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06년 첫 부임한 안 교육감은 당시 13위(언어)와 8위(수리)에 불과했던 주요 과목의 성적을 부임 3년만에 전국 1위로 올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안순일 교육감은 “실력 광주”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돼 이뤄낸 성과이지, 교육감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면서 “‘실력 광주’라는 명성에 흠이 나지 않도록 광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사진=나병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지방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 속 광주 남·북구 의회만 인상

남구 10.3%, 북구 5.5% 인상...경제난 외면 비난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동결한 가운데 광주 남구의회와 북구의회만 인상을 결정해 눈총을 받고 있다.

3일 광주 남구청과 북구청에 따르면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 남구의회와 북구의회는 전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10.3% 인상한 3천220만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2천919만원보다 309만원이나 올랐다.

또 북구의원들은 올해 3천116만원보다 5.5%(173만원) 인상된 3천289만원을 받

게 된다. 이같은 결정은 남구의회와 북구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요구해 이뤄졌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2년 연속 의정비 동결로 남구의회 의정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며 “이번에 인상하더라도 행정안전부 기준액 2천329만원보다 낮다”고 해명했다.

북구의회도 “타 기초의회에 비해 의정비가 턱없이 적은 것으로 판단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외면한 처

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남구의회와 북구의회를 제외한 광주·전남지역 모든 지방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더 높다.

광주시의회 이명자 운영위원장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는 것도 의원들이 할 일이다”며 “지역민들의 어려움과 이해를 생각하는게 먼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근로자들의 경우 올해 임금이 지난해보다 123만원(-4.7%)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K씨의 행복했던 10월



김미은
문화부 차장

공연을 좋아하는 K씨에게 10월은 행복한 달이었다. 10일간 계속된 광주국제공연예술제(이하 공연예술제) 덕분이었다. K씨는 프로그램이 발표되자 꼼꼼히 정보를 체크, 보고 싶은 작품을 일찌감치 예매했다. 행사 시작 후엔 다른 일정을 일체 잡지 않고 거의 매일 광주문예회관으로 출근해 ‘지킬 앤 하이드’ 등 6작품을 관람했다.

이번 공연예술제는 객석 점유율 80%, 유료 관객 80%라는 통계에서 보듯 관객들의 참여가 높았다. 광주에서 접하기 어려운 작품과 저렴한 티켓이 주효했던 덕이다. 리차드 용재오닐, 베스트 베스트, 투란도트 세 작품을 보는 티켓이 5만원에 불과해 티켓 구입하기가 미안했다는 소리가 나올만도 했다.

공연 축제의 성패는 프로그램의 경쟁력에 있다. 올 라인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예술감독이 행사 3개월 전에 선정된 점을 감안하면,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라인업이었다는 평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쉬운 점도 있다. 상연작 대부분이 서울 공연작 중 이미 검증된 작품을 취합했을 뿐 ‘발굴’의 의미는 없었다.

관객의 열광적 반응은 광주 초연이라는 ‘희귀성’과 저렴한 가격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런 행운은 계속되지 않는다. 다양한 기획 등을 통해 ‘저렴한 명품 공연’이 지속 상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21일 공연될 ‘강동석·조영창 실내악’ 티켓도 1~2만원에 불과하다. 최고의 스타 피아니스트 김선욱 공연은 2일 한 기업체가 전석 초대로 진행했다.

이번 같은 ‘나열식 행사’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공연예술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특화된 작품을 발굴하고, 때론 흥행과 관계 없이 신 문화기류를 전파하며 ‘이슈’를 만드는 선구적인 작품을 올릴 필요도 있다. 또 구색 맞추기 식으로 끼워넣는 ‘지역 작품’의 변화와 아트 마켓 등 관련 행사도 연구해야 한다. 어쩌면 이번 행사가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은 건 행사 때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터라 기대치가 그만큼 낮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2010년 행사는 더 이상 ‘상황’을 탓하며 자족하는 상태로 치러져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일이 많다. 당장 시·국비 지원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들 판이어서 예산 확보가 급하다. 행사를 장기적으로 준비할 사무국 상시 체제도 갖춰야 한다.

또 하나, 광주시는 철저히 지원자로 남아야 한다. 조직위의 내용으로 깨질 뻔 했던 행사를 살리고, 무리 없이 마무리한 데 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예산 확보 등을 제외하고는 조직위에 100% 재량권을 주는 게 필요하다.

조직위가 시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공연예술제는 생명력을 잃고 만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번에도 행사의 성공이 특정인의 처적으로 언급되는 모습은 보기 민망했다.

수많은 K씨들의 ‘10월의 행복’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mekim@kwangju.co.kr



거북등처럼 갈라진 저수지

3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중국 장시성 잉탄 지역 외곽 연못에서 한 주민이 양동이에 물을 퍼담고 있다. /연합뉴스

北 “폐연료봉 8천개 재처리 완료”

북-미 양자회담 압박용인 듯

북한이 폐연료봉 8천개의 재처리를 지난 8월말 끝냈으며 여기서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무기화하는 데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3일 주장했다.

통신은 “조선(북한)에서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지난 4월 조선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 가 대 조선 제재를 발동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갔다”고 상기시키고 “이 기간 조선은 6차 합의에 따라 무력화했던 영변 핵시설을 원상 복구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재처리 시설을 가동시켰으며 8천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8월말까지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말했다.

통신은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억제력 강화를 위해 무기화하는 데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이룩됐다”고 말했다나 구체

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인 최근 미국을 방문해 성 김 국무부 북핵특사와 접촉을 가진 후 북한 외무성이 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을 통해 미국에 다자회담에 앞서 먼저 북미 양자회담을 갖는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 3일 중앙통신이 재처리 완료와 핵무기화 성과를 거듭 주장하고 나선 것은 미국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채취공업부문 성과를 전하는 기사에선 “각지 우라늄 광산에서도 위훈이 창조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게 될 경수로 발전소의 핵연료를 원만히 보장하려는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양양된 열의와 줄기찬 노력투쟁에 의해 우라늄 광석 생산에서 획기적인 성과들이 이룩됐다”고 경수로 발전소의 자체 건설 주장을 거듭 상기시켰다.

/연합뉴스

“혁신도시 차질없이 진행될 것”

정중환 장관, 157개 기관 연말까지 이전계획 승인 완료

정중환 국토해양부장은 3일 “혁신도시 시는 세종시와 달리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과의 간담회

에 참석, 이 같은 밝힌 뒤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되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57개 기관(현재 117개 이전 승인)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급선 밀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Large advertisement for 'Kwangju International Performance Festival' (광주국제공연예술제)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in a costume and text about ticket prices and performance details.